

수줍은 듯 유보적인 영국의 책문화

책읽기가 생활화된 책의 왕국

이석우 · 경희대 사학과 교수

영국을 떠올리면 선명하게 살아나는 두가지 깊은 인상이 있다. 하나는 사시사철 푸른 잔디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과 서점을 가득 메운 그 찬란하리만큼 다양한 책이다. 그래서인지 생명이 솟아나는 지금 같은 봄이면 피어나는 꽃과 예술품처럼 아름다운 책이 오버랩된다. 책이 주인을 기다리며 부활과 침묵을 계속하는 것도 마치 새로운 개화를 꿈꾸는 꽃나무와 같다고나 할까.

책이야말로 가까운 친구

흔히 영국을 책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후 풍토와 사람의 기질,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기후는 하루에도 사계절이 다 들어 있다고 할만큼 예측불허이고 전체 분위기는 어딘가 회색빛 우울함이 서려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홀로 있는 것을 즐기는 처지라면 책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선뜻 마음을 열고 왈자지껄하기 보다는 어딘가 수줍은 듯 유보적이다. 더구나 그 작은 나라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으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을 것이다. 영국에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어 책이야말로 가장 영국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하겠다.

필자가 머물던 곳이 옥스포드이기에 자연 영국의 책문화란 결국 옥스포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옥스포드에는 케임브리지와 쌍벽을 이루며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옥스포드 출판부가 있다. 그곳에서 책을 낼 수 있다면 학자로서는 일생일대의 영광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유명한 블랙웰(Blackwell)과 옥스보우(Oxbow Books)출판사가 책을 출판하면서 공히 서점을 내고 있다. 특히 블랙웰은 사회·역사·문학·미술·음악 등 분야별로 독립된 건물에 서점을 가지고 있으며, 페이퍼백만 취급하는 서점이 따로 있다. 특이한 것은 중고서적과 희귀서적(rare books) 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국적인 책문화의 면모는 역시

영국을 떠올리면 선명하게 살아나는 두가지 깊은 인상이 있다. 하나는 사시사철 푸른 잔디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과 서점을 가득 메운 그 찬란하리만큼 다양한 책이다. 그래서인지 생명이 솟아나는 지금 같은 봄이면 피어나는 꽃과 예술품처럼 아름다운 책이 오버랩된다.

‘중고서적 서점’과 중고서적의 장터라고 할 수 있는 북페어에서 찾을 수 있다. 책마음을 이루고 있는 ‘헤이 온 와이’나 두달이 멀다하고 곳곳에서 열리는 북페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 영국에서 중고서적 개념은 우리의 헌책방 개념보다는 고서점에 가까운데 책값의 차이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책을 발견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짙다. 놀라운 것은 이들 서적상은 자기 분야 책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어떤 책이 좋으며 언제 출판됐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훤히 다. 이곳은 또한 좋은 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중고서점은

영국의 주요지역 어디에 가도 있으나 특히 옥스포드의 세인트자일스 거리에 있는 옥스팜(Oxfam)을 빼뜨릴 수 없다. 이는 중고서적을 팔아 자선사업을 하는 곳으로 모든 책은 기증된 것이다. 대석학부터 일반 서적애호가까지 유증된 책 중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소중한 것이 있다. 자선과 책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멋진 곳이다.

책 앞에선 만인이 평등

서점을 열지 않더라도 개인이 집에서

전문분야 책을 모아 일종의 우편 내지 방문받는 형식으로 책을 판매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취미와 상행위를 겸했다고 하겠다. 북클럽이 많이 있어 책읽기와 책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책읽기가 생활화된 것은 도서관 제도의 활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시·군단위는 물론 면까지 도서관이 있어 늘 대출받을 수 있다. 책을 공급하는 일을 도서관이 맡은 셈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이니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책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다.

책을 한권 읽는 것은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이 비유된다. 끝내는 자라 새가 날아오고 그 그늘 아래 사람이 쉰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책을 사 모은다고 기를 썼지만, 지금도 그때 사지 못한 책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